

감성화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박 덕 건

월간 여성중앙 기자

젊은층이 사회 저변에 자리잡아 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진다. 이 글은 감성화로 나타나는 이 시대 변화의 모습을, 소비자로서, 회사원 또는 직업인으로서 표출되는 신세대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불편보다는 개성을, 質보다는
멋을 찾는다.....

패 션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이정은씨 (28세)는 얼마전 마음에 꼭드는 물건을 하나 구했다. 바로 군대에서 쓰는 탄약통이다. 그것을 요즘 그녀는 마치 핸드백처럼 들고 다닌다. 그 속에 일할 때 필요한 조그만 소품과 함께 잡다한 소지품들을 넣어 다니는 것이다. 물론 철판으로 만든 투박한 것이라 보통 핸드백보다

는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씩 웃으며 “멋있잖아요?” 할 뿐이다.

핸드백으로 탄약통을 쓰는 것은 국민교육현장에 우리 국민이 ‘숭상’해야 할 가치로 명시되어 있는 ‘능률과 실질’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터무니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씨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랜만에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나 할까.

약간의 불편은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색다른 디자인의 가방을 찾아봐도 이 탄

약통만큼 소유자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주는 물건을 구하기가 어디 쉽겠느냐는 것이 그녀가 만족하는 이유다. 사소한 액세서리를 하나 고르는 데서 드러나는 이런 차이가 요즘 이른바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다. 기성세대에게 탄약통은 그야말로 총알을 담은 용기로서 민간인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이씨에게는 그것이 멋있는 가방으로 보였던 것이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김민정씨(26)는 요즘 어머니와의 생각차이 때문에 때아닌 흥역을 치르고 있다. 시집가서 쓸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들을 사야 하는데 어머니와 딸의 선택기준이 너무 다른 것이다.

“저는 가구들은 모두 아이보리색 계통으로, 전자제품들은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신혼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는데 어머니는 그걸 이해 못하세요. 우선 제품의 품질을 먼저 봐야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 없는 색깔을 그렇게 따지느냐는 거죠.”

물론 김씨도 고장없고 튼튼하고 값싼 물건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제품이 크게 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만그만한 수준은 된다고 봤을 때 보다 보기 좋은 물

건을 골라서 집안을 멋있게 꾸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 김씨의 항변이다.

신세대는 능률과 실질적인 것,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보다는, 불편스러워도 개성과 취향 위주의 삶을 선호하고 있다. 직업관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고정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장르를 목표로 개인의 적성에 맞으면 남의 시선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에게 기대서 살았으니까 뭔가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도 뜻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의 공간이 생겼으므로 그동안 잡지따위를 보며 연구해 두었던 홈인테리어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이것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우선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칠없는 짓으로 비쳤던 것이다. 단순한 개인의 기호차이를 넘어서는 세대간의 감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토코쇼 MC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병진씨도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가 몇년전부터 언더웨어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인데 필자는 얼마전 취재차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 중에 히트상품이 있

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물론 있다”면서 “참 예상치 않았던 히트작”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팬티를 가리켰다. 그것은 다른 부분은 보통 팬티와 똑같은데 유독 밴드 부분이 아주 넓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보시다시피 이젠 입기가 아주 불편해요. 밴드 부분이 넓으니까 일복 때도 아주 번거롭죠. 사실 애초에 저희가 이걸 만든 것은 시장에서 많이 팔겠다기보다는 저희 회사의 이미지 상품으로서 기획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판매를 시작하니 이게 제일 잘 팔려요. 저희도 아주 뜻밖이었죠.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해보니 이 팬티가 입기는 불편해도 뭔가 색다르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 회사 주고객은 청소년층인데 그들은 속옷도 남들 다 입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느낌이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원래 주씨는 회사를 시작할 때 국내 언더웨어업계가 성인 남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저씨, 아줌마’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이 밀려나 있는 청소년층을 주고객으로 설정했는데 역시 그들의 소비패턴은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속옷도 패션

시대라는 말을 우스개소리처럼 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그게 전혀 우스개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처럼 청년층의 취향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 없어요. 옷이 입기 편해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그들은 그런 상식을 거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찾습니다. 글썽 속옷을 보여줘서 어찌자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웃음).”

내가 좋아하는 직업선택에 공지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작고 사소한 한 단면들이다. 그러나 물건 하나를 고르는 데도 차이가 나는 신세대의 취향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상품 중에 어떤 것을 골라 잡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관된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 신세대들은 삶을 사는 방식에서도 기성세대와는 벌써 큰 차이가 있다.

올해로 8 번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민씨는 나이 스물아홉의 건장한 청년이다. 두 손에 퍼머액을 묻힌 채 아가씨들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필자만의 느낌일 뿐 미용실 안의 그 누구도 그가 남

자미용사라는 사실을 어색해 하는 이는 없다.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미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친척 아주머니의 소개로 처음 미용실의 문을 두드렸다. 아들이 미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본인도 처음에는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곧 재미를 붙이게 됐다. “남자가 미용사를 하는 예가 드무니까 주위에서 은근히 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해매는 것보다는 장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훨씬 확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일 자체도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남의 시선에는 신경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안 간 것이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다. 워낙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간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보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들에 비해 그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그는 멀지 않아 미용실을 차려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다. 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미용협회에 따르면 남자 미용사가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 서울 시내의 미용학원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자 미용사 지망생들이 평균 10~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직업이 가진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은 위와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온 일을 남성이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거꾸로 남성들이 해온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학력의 인력들이 해온 일에 고학력의 인력이 관심을 보이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방송, 영화, 광고 등 영상매체와 함께 성장해온 그들은 이들 매체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속에서의 자기 표현이 무엇보다도 당연하고 소중한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텔런트나 가수, 모델 등 전통적으로 ‘판따라’라고 불리며 고학력의 인력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직종에 대학졸업생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위 명문대 출신들의 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스타로 부상한 윤

동환, 감우성 등의 탤런트, 그룹 015B의 정석원, 장호일 등의 가수, CF모델 이종은 등은 방송가에 이미 잘 알려진 서울대 출신 연예인들이다.

방송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89년을 고비로 해서 탤런트 공채시험의 지원자 중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 출신들이 꾸준히 늘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전체 지원자의 약 50% 이상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들이며 약 10%정도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실속없이 그저 겉만 번드르르하게 보이는 모델에도 요즘은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몰릴 뿐 아니라 그 중 지원자들의 학력 등 자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옛날에도 학사출신 연예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후배 연예인들이 선배들과 다른 점은 선배들에 비해 연예활동에 대한 목적의식이 한결 선명하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 삼아 어떻게 하다보니 연예인이 되었다든지 하는 식의 예는 드물고 처음부터 어떤 장르를 목표로 삼아 나름대로의 연구 끝에 비로소 연예계에 입성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크다.

신세대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역시

영상세대답게 방송, 영화, 광고 등 모두 영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를 보고 자라고, 상업광고를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감각을 단련시켰던 이들에게 영상은 마치 이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속에서의 자기표현이 무엇보다도 당연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삶의 모습이, 일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남자라면 역시 남자답게 권력, 출세 지향적이고 덩어리가 큰 어떤 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관념도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출세의 직행코스라고 생각되었던 관공사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그 좋은 예다.

옛날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공사를 지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은 성적이 우수한 합격자 중에서도 변호사를 지망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옛날에는 대개 연수원 졸업성적 순으로 위에서 부터 판사, 그 다음 순위는 검사,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개업했으나 이제는 그런 선호도가 허물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원의 분위기부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질서가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일찌감치 전문변호사로서 자기 분야를 하나 잡아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진취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막바로 변호사를 개업, 국제금융분야를 집중 공부하고 있는 이모 변호사(30세)의 말이다.

비좁은 판사실에서 매일 일에 짓눌려 허덕이는 것보다는 자기 전공을 갖고 권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다는 것이다. 바뀐 말해서 판사라는 직함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실력에서 나오는 권위로 승부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세대의 독특한 쉼터다.

한편 판사나 검사를 택한 젊은이들이라 해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선배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은 법관직을 선배들과 같이 신성시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법관은 성직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직업일 뿐인 것이다.

그런 이들을 보고 선배들은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후배들은 바로 그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고

맞받는다.

예를 들어 소장 판검사들이 옷을 벗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방근무 기피가 꼽히는데 선배들은 이런 후배들의 태도를 두고 책임감 부족이라고 꾸짖지만 정작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 젊은 판사의 항변.

“물론 하나의 직업을 지망했으면 거기에 최대한의 열의를 갖고 파고드는 것이 직업윤리로서도 옳겠지요. 그러나 어떤 판사가 지방근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옷을 벗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개인주의적이라고 몰아부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이 따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 등 많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데 선배들은 그런 문제들을 소명감으로 감싸안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희생의 반대급부로서 노골적인 특권의식에 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희생이 결코 비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들 사이에서도 신세대의 행동패턴은 확연히 구별된다. 최근 현대 전자에서 남녀사원 420 명을 조사한 것을

보면 이들의 최대관심사는 38%가 자기계발, 그 다음은 인간관계(19%), 급여(18%) 등이고 승진은 겨우 8%를 차지했을 뿐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는 자기 능력을 쌓고 인생을 좀더 풍성하게 사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직장에서 단순히 일을 지시받아 업무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의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승진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생활의 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 소수의 인원으로도 영입이 가능한 신종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영향이 크다.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신세대들에 대해서 고참들은 당연히 불만스런 표정들. 자기네들같은 투지와 끈기도 없고 그저 노는 데만 신경을 쓴다고 꼬집는다. 무슨 일을 시키면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될 것 같다”고 미리 머리를 흔들기 일쑤라는 것.

그렇지만 후배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입사경력 6년인 김대리(31세)의 얘기.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면 생길 수도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구요. 애초부터 그런 것 생략하고 로봇처럼 부리려면 뭐하러 돈 많이 주고 고학력자를 뽑습니까?

노는 것만 밝힌다는 지적에도 할 말은 많다.

“저희 세대는 대체로 회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만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말단 직원들은 수백, 수천 명이 있지만 맨꼭대기에 톱은 언제나 하나뿐이죠. 지금 그 톱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해도 나중에 성공하는 이는 그 중에 몇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한 사람들은 어디서 그 보상을 해줍니까. 도전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도전해서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러므로 이를테면 생활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회사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쯤에서 신세대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첫째는

그야말로 레저 등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사는 타입, 둘째는 규모가 큰 조직을 떠나서 소규모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로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컴퓨터 열풍에 힘입어 컴퓨터 관련 업종에 신세대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현상이나 소수의 인원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신종 서비스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는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영향도 있지만 이 변화들을 신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내 나뉠의 세계를

창조한다.....

신세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한 대학생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들의 부모세대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관념은 아마 ‘교양’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보다 친숙한 어휘로 바꾸면 ‘공부’가 되겠죠. 엄청나게 후진적인 사

회에서 성장했던 그 분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저 엄청난 근대적 문물들을 단시간 내에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고 그들의 의식도 그 과제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딱 차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폼으로라도 집에 도스또예프스끼 전집을 사다놓고 실제로 그 작품을 읽었던 아니든 간에 도스또예프스끼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식으로 교양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내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교양의 외적인 실현이 곧 출세죠.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공부에 쏟은 정열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 반해 신세대들의 의식 속에는 교양에 대한 강박관념 따위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 실현이라는 관념이 더 큰 문제로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 것인가 하는 식의 고민이죠. 이미 고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보다는 내 나뉠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식의 발상이라고나 할까요.” ♣